2~3세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변인들: 부모에 대한 애착표상 및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Attachment Representation and Marital Support as Predictors of a Mother's Parenting

박 성 연*
Park, Seong Yeon
임 희 수**
Lim, Hee Su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contribution of mother's representation of her mother and father during early years, marital satisfaction, and husband's participation in child caring to mothers' parenting behaviors. The subjects were 253 middle-class mothers and fathers in Seoul who had 2-to 3-year-old children. The data were gathered through questionnaires developed for the current study. As predicted, marital satisfaction and husband support as well as early family experiences were significant variables in predicting positive mothering for mothers of young children. However, the most powerful predictor of mothers' parenting turned out to be marital satisfaction. It was noteworthy that mothers who experienced positive and secure relationships with their own mothers were actively involved/intimate with their children whereas mothers who had insecure relationships with their own fathers showed more authoritarian control over their children.

*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Ⅰ. 문제 제기

아동이 태어나서 처음 접하게 되는 사회적 환경인 가정은 아동의 발달을 위한 직접적인 환경이므로, 가정 내에서의 부모-자녀 관계나 양육행동은 자녀의 인격 형성이나 사회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양육행동 중에서도 특히 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끊임없는 연구주제가 되고 있으며, 학자들은 각자의 이론적인 관점에 근거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시도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여러 가지 양육행동유형이 아동의 발달과 어떠한 관련을 갖는가에 초점을 둔 연구와 양육행동의 개인차에 관한 연구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제가 되고 있는 양육행동의 개인차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사회 인구학적인 변인들이나 부모의 인성 및 아동의 기질을 중심으로 이루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동발달에 있어 전 생애적 관점과 생태학적 관점이 강조되면서 양육행동 연구에서 어렸을 적의 부모-자녀관계, 또는 아동을 둘러싼 여러 수준의 환경들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및 사회 문화적인 요인과 같은 다양한 변인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Belsky, 1984; Luster & Okagaki, 1993).

특히, 어렸을 적의 부모와의 상호작용경험으로 형성된 애착관계의 질이 전 생애에 걸쳐 인간의 행동이나 관계형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애착이론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애착표상(attachment representation)과 부부관계, 또는 부모자녀관계를 관련지은 연구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 의하면, 양육자와의 애착 경험에 근거하여 형성된 애착 표상, 즉, 내적 작업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은 차후의 인간행동과 사회적인 관계의 원형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기 때 형성된 애착행동 유형 또는 애착의 질은 그 아동이 성장하여 새로 구성한 가족에서의 부부관계와 관련된다(Cohn et al., 1992; Hazen & Shaver, 1987; 유은희, 1991; 전춘애, 1994). 또한, 어린 시절 자기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자녀는 안정된 애착아로 분류되는 한편, 부모에 대한 회상을 회피하는 등 거부적인 특성을 나타낸 어머니들의 자녀는 거부적인 애착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Main, Kaplan, & Cassidy, 1985; 박응임, 1995). 결국, 애착 연구자들이 주장하였듯이 어머니가 아동기 때 경험한 애착관계의 질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며(Sroufe et al., 1985; Bretherton, Bringen, & Ridgeway, 1991) 나아가 자녀와의 관계를 발달시키는데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최근에 발표된 Slade, Belsky, Aber와 Phelps(1999) 연구에서는 자기 부모에 대한 애착표상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영유아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상황이 자녀에 대한 표상 또는 생각에 영향을 주어 양육행동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시사되고 있다. 또한 어머니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아동의 발달이나 적응에 독자적인 기여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함에(Pleck, 1997) 따라 애착연구에서 아버지와의 관계 역시 중요시되고 있다.

한편, 양육행동의 발달적인 기원으로 부모의 인성과 관련하여 발달적인 역사나 부부간의 관계의 질, 또는 가까운 사람간의 지지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Vondra와 Belsky(1993)는 현재 경험하고 있는 지지적인 부부관계는 발달적

인 역사로 인한 부정적인 양육행동의 가능성에 대해 완충적인 효과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어렸을 적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특성 외에도, 현재의 가족관계 내에서의 경험, 즉 결혼만족도나 남편의 지지정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부부관계의 질과 자녀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경우 부부관계가 원만하면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반면, 부부관계가 불만족스러우면 자녀양육에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박성연, 1992; 이정희, 1986; 이해영, 1995; Engfer, 1990; Belsky & Isabella, 1985)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있어 배우자가 주요한 지지체계가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다른 몇몇 연구들(Belsky, Gilstrap, & Rovine, 1984; Belsky et al., 1991; Easterbrooks & Emde, 1990)에 의하면 어머니는 결혼만족도에 따라 양육행동에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아버지는 결혼만족도에 따라 양육행동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 결과에 비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는 대부분의 가정이 핵가족화되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아버지들의 자녀양육 참여는 필수적이 되는 한편, 지지체계로서의 남편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고,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남편의 협조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요인들은 일반적으로 어머니에 대한 지지체계로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시사된다.

특히, 자녀의 연령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자체는 물론 양육행동과 관련된 남편의 역할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를 둔 결혼 초기의 부부들은 양육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 이러한 경우 결혼만족도가 낮거나 남편의 지지가 적으면 양육스트레스가 더욱 증가하게 되고, 높은 양육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가져오게 된다(박성연, 전춘애, 한세영, 1996; 전춘애, 박성연, 1998). 따라서 어린 자녀를 둔 결혼초기에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부부관계의 질이나 자녀양육 참여도가 지지체계로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력을 더 크게 미치게 된다(Goldberg & Easterbrooks, 1984; Emery & Tuer, 1993).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1~2세 영아들의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한 Clarke-Stewart(1980)는 아버지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참여할 경우,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보다 긍정적이고 모-자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양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Donovan과 Leavitt(1989)은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간접적으로 어머니의 인성과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어 5개월 된 영아를 양육하는데 있어 남편이 거의 참여하지 않거나 우울증이 있는 어머니는 영아의 울음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밝혔다.

한편, 일반적으로 자녀의 성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들은 연구 대상자(부모 또는 아동)나 대상 아동의 연령에 따라 비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아동이 지각한 양육행동의 경우에는 대체로 성에 따른 차이가 보고되는(이숙, 1988) 한편, 부모가 보고한 양육행동은 일반적으로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가 없다(김영신, 1981; 임희수, 1993). 또한 어린 연령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임희수, 1993; Park & Belsky, 1998)에서는 좀 더 나이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보다 아동의 성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나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에 대

한 해석으로 어린 연령의 유아들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아동의 성에 따른 특별한 양육행동이나 태도나 가치관을 나타내기보다는 아동에 대한 양육(caring) 자체에 몰두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어린 연령의 아동(만 2~3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본 연구에서 아동의 성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이런 일련의 연구결과들과 그 맥을 같이 할 것으로 보여진다.

종합하면, 애착이론이나 생애발달적 관점에 의하면, 어머니의 부모에 대한 애착 표상은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그러나 애착 표상이 긍정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나타낸다기보다는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어머니의 경우는 특히 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므로 현재의 부부관계의 질 역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한편, 지금까지 애착 또는 결혼만족도와 관련하여 수행되어온 양육행동에 관한 국내연구들은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학령기 이전 아동이나 학동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며, 한 연구에서 애착과 결혼관계, 두 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것은 드물다(전현진, 박성연, 1999). 이에 본 연구는 만 2~3세 어린 유아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 결혼만족도 및 남편의 자녀 양육 참여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차이를 살펴보고, 애착표상과 부부관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신의 부/모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및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부/모에 대한 애착, 결혼만족도,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3세 전후의 유아를 둔 253명의 어머니들이며,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류층에 해당된다고 평가되는 10개 지역을 임의로 선정하여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 대상자 자녀의 성별은 남아 140명(55.3%), 여아 113명(44.7%)으로 연령은 24개월에서 40개월의 분포를 이루고 있으며 평균 연령은 36개월이었다. 한편 조사 대상자인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1.2세였으며 약 56%가 전업주부였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52.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대졸은 24.1%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한편 조사 대상자의 남편의 교육수준은 대학중퇴 내지는 대졸이상이 64.1%, 고졸이 34%로 나타났으며 직업은 사무/기술직이 39.9%, 자영업자가 17.8%, 기능관련 근로자가 14.2%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의 평균 결혼연수는 5년 8개월이었고, 이들 가정의 월 평균수입은 약 190만원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 자신의 부모와의 정서적 애착, 어머니의 결혼관계의 질, 남편의 자녀 양육 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한 각각의 질문지가 사용되었다.

(1) 양육행동

양육행동 척도들은 대부분이 학동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만 2~3세 유아에 대해 부모가 주로 나타내는 양육행동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 6개 범주(애정표현, 독립심 격려, 적대감, 적극적 참여, 통제, 합리적 지도)를 정하고 Block(1984)의 CRPR(Child Rearing Practices Report)과 Crase, Clark과 Pease (1979)의 IPBI(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를 근거로 총 32개로 이루어진 새로운 양육행동 척도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 검사와 요인분석을 거쳐 본 조사에서는 최종적으로 합리적 지도(6문항), 독립심 격려(4문항), 거부적 태도(7문항), 적극적 참여(6문항), 통제(5문항)의 5개 요인으로 명명된 총 28문항을 사용하였다. '합리적 지도'는 자녀가 수용될 수 있는 행동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수용될 수 있는 행동과 수용될 수 없는 행동의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자녀의 정서적인 표현을 지지해 주는 행동이다. '독립심 격려'는 자녀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하며 자신의 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가르치는 행동이다. '거부적 태도'는 자녀에게 화를 내거나 신경질을 자주 내며 자녀를 귀찮게 여기는 행동과 관련되는 내용이다. '적극적 참여'는 자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양육행동으로서 자녀가 할 수 있는 놀이를 제안해 주고 함께 놀이를 하며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자녀가 도움을 청하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도와주는 행동이다. '통제'는 자녀가 하려는 어떤 행동에 대해 간섭 또는 지시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1점부터 4점까지의 Likert식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방향의 양육행동을 하는 것을 나타낸다. 양육행동 중 '거부적 태도'에 관한 7개 문항 중 3개 문항과 '통제'에 관한 5개 문항은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방향의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양육행동 척도의 요인별 신뢰도는 α= .50~.77 이었다.

(2) 애착

본 연구에서는 Armsden과 Greenberg(1987)의 청년기 자녀의 애착 척도(IPPA)를 기초로 우리나라 문화를 고려하여 기혼자녀용 애착측정척도를 개발한 유은희(199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16개 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의 내용은 어머니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게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친밀하고 신뢰로운 관계인가를 회고식으로 묻는 것으로, 11문항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시되어 있고 5문항은 부정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부정적으로 제시된 문항은 정서적 유대감 점수 산출을 위해 역산되었다. 유은희의 애착척도는 원래 5점 척도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4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아버지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은 α=.94, 어머니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은 α=.93로 나타났다.

(3)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Roach, Frazier와 Bowden의 결혼만족도 척도(MSS) 48개 문항

을 번안한 후 단축형으로 재구성한 유은희(1991)의 결혼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결혼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정도를 묻는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되어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응답의 편이성을 고려하여 4점 척도로 수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을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α=.89였다.

(4)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는 최경순(1993)의 척도를 만 2~3세 자녀를 둔 아버지용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아버지 자녀양육 참여도는 아버지가 직접 응답한 것으로, 척도의 내용은 자녀와 아버지가 함께 하는 활동에 대한 내용들과 자녀에 대한 생활지도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아버지 자녀양육 참여도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척도로서, 신뢰도는 α=.88이었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 실시에 앞서, 어머니 8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방법에 의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자료를 기초로 질문지의 신뢰도를 산출하고 부적절한 문항의 내용이나 표현을 수정, 보완하여 본 조사를 위한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20개의 어린이 집, 유아원, 놀이방을 중심으로 만 2~3세 전후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총 267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가운데 잘못 표기한 경우, 자녀의 연령이 너무 어리거나 또는 많은 경우를 제외한 총 253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척도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Cronbach α를 산출하였으며, 자료분석을 위해서는 연구문제에 따라 t검증, ANOVA, Pearson's 상관관계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연구문제 분석에 앞서 아동의 성별에 따른 각 양육행동 점수를 분석한 결과, 〈표 1〉에서 보듯이 2~3세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 연령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결과들(Baumrind, 1971; Magolin & Patterson, 1975;

〈표 1〉 자녀의 성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차이

종속변인 / 독립변인		합리적 지도			독립심 격려			거부적 태도			적극적 참여			통제		
		N	$\bar{X}$	t	N	$\bar{X}$	t	N	$\bar{X}$	t	N	$\bar{X}$	t	N	$\bar{X}$	t
자녀의 성	남	137	1.90 (.37)	1.27	138	1.93 (.41)	-.36	136	2.57 (.31)	-.38	138	2.18 (.39)	.03	137	2.49 (.34)	-.35
	여	113	1.84 (.36)		112	1.95 (.48)		112	2.58 (.29)		111	2.18 (.37)		113	2.51 (.40)	

( ) : S.D

임희수, 1993; Park & Belsky, 1998)과 일치하는 것으로 어머니가 어린 자녀에 대해서는 성에 따른 특정한 양육태도나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은 아동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1. 자신의 부/모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정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위하여, 어머니가 자신의 부/모 각각에 대한 애착점수 평균(아버지: $\bar{X}$2.43, 어머니: $\bar{X}$= 2.29)을 중심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어머니의 각 양육행동 점수들에 대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2〉는 어머니가 자신의 부/모에 대해 갖는 애착이 높고 낮음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애착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양육행동 범주는 합리적 지도와 독립심 격려 및 적극적 참여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부적이거나 통제적인 양육행동에서는 자신의 부/모에 대한 애착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애착정도에 따른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애착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2.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및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 각 범주들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평균 점수($\bar{X}$=2.28)를 중심으로 결혼만족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점수에 대한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인 어머니의 양육행동 범주는 합리적 지도, 독립심 격려, 거부적 태도 및 적극적 참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제적인 양육행동은 결혼만족도와 관계가 없었다.

〈표 2〉 어머니 자신의 부모에 대한 정서적 애착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

종속변인 / 독립변인		합리적 지도			독립심 격려			거부적 태도			적극적 참여			통제		
		N	$\bar{X}$	t	N	$\bar{X}$	t	N	$\bar{X}$	t	N	$\bar{X}$	t	N	$\bar{X}$	t
父에 대한 애착	높은 집단	105	1.95 (.36)	2.67**	105	2.08 (.42)	4.02***	102	2.54 (.31)	-1.22	105	2.29 (.41)	3.95***	105	2.48 (.35)	-.36
	낮은 집단	128	1.82 (.37)		128	1.85 (.44)		129	2.59 (.29)		127	2.10 (.34)		128	2.50 (.40)	
母에 대한 애착	높은 집단	113	1.99 (.30)	4.31***	112	2.06 (.38)	4.17***	110	2.54 (.28)	-1.36	112	2.31 (.39)	4.54***	113	2.50 (.36)	-.13
	낮은 집단	127	1.79 (.40)		128	1.83 (.48)		128	2.59 (.31)		128	2.09 (.36)		127	2.51 (.39)	

* p<.05 ** p<.01 *** p<.001 ( ) : S.D

주) 양육행동 각 범주의 점수범위(1~4): 점수가 높을수록 합리적인 지도, 독립심 격려, 거부적 태도, 적극적 참여, 통제행동을 많이 함

〈표 3〉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

종속변인 / 독립변인		합리적 지도			독립심 격려			거부적 태도			적극적 참여			통제		
		N	$\bar{X}$	t	N	$\bar{X}$	t	N	$\bar{X}$	t	N	$\bar{X}$	t	N	$\bar{X}$	t
결혼 만족도	높은 집단	123	1.94 (.34)	2.87**	122	2.06 (.40)	4.24***	121	2.52 (.29)	-3.16**	122	2.29 (.39)	4.51***	123	2.53 (.31)	.1.57
	낮은 집단	117	1.80 (.39)		118	1.82 (.46)		118	2.64 (.28)		118	2.07 (.36)		118	2.46 (.41)	

** p<,01 *** p<.001 ( ) : S.D

〈표 4〉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차이

종속변인 / 독립변인		합리적 지도			독립심 격려			거부적 태도			적극적 참여			통제		
		N	$\bar{X}$	t	N	$\bar{X}$	t	N	$\bar{X}$	t	N	$\bar{X}$	t	N	$\bar{X}$	t
남편의 자녀 양육 참여도	높은 집단	115	1.96 (.36)	2.89**	115	2.02 (.47)	2.59**	114	2.56 (.29)	-.64	115	2.26 (.38)	2.67**	116	2.48 (.35)	-.88
	낮은 집단	115	1.81 (.37)		115	1.87 (.42)		114	2.59 (.31)		114	2.12 (.38)		114	2.52 (.40)	

** p<.01 ( ) : S.D

한편, 남편의 자녀 양육 참여도 점수 평균($\bar{X}$ =2.09)을 중심으로 상하 집단으로 구분한 후 어머니 양육행동점수에 대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어머니의 양육행동 범주들은 합리적 지도, 독립심 격려, 적극적 참여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그러나 거부적, 통제적인 양육행동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어머니의 부/모에 대한 정서적 애착, 결혼만족도, 남편의 자녀 양육 참여도가 각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5〉에서 보듯이 양육행동에 있어서는 '통제'적인 행동이 사회계층과 관련이 있었고, 이외에도 결혼만족도와 남편의 양육 참여도가 사회계층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에 사회계층의 영향을 통제함으로써 순수하게 각 독립 변인들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을 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위계적 회귀분석 1단계에서 사회계층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 2단계에서 어머니의 父에 대한 애착, 母에 대한 애착, 3단계에서는 결혼만족도, 남편의 자녀 양육참여도 요인을 투입하여 각각의 양육행동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6에서 보듯이, '합리적 지도'에 대한 4개 독립변인의 영향력은 1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도(β=.26, p<.01)이었으며, 어머니의 결혼만족도(β=.19, p<.01)가 그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는 변인이었다. 어머니의 '독립심 격려' 행동에 미치는 4개 변인의 영향력은 18%이며 이 중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β=.28, p<.001)와 아버지의 양육참여도(β=.14, p<.05)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참여를 많이 할수록, 그리고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어머니는 자녀에게 합리적 지도, 독립심 격려를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육행동 범주 중 '적극적 참여'에 미치는 모든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은 16%였으며 이 변인들 중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은 결혼만족도(β=.25, p<.001), 어머니의 母에 대한 애착(β=.20, p<.01),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도(β=.15, p<.05)의 순으로 나타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정서적 애착이 긍정적일수록, 남편이 자녀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어머니의 적극적 참여 정도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한편, 양육행동 범주 중 '거부적 태도'에 미치는 4개 변인의 영향력은 3%로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결혼만족도(β=-.17, p<.05)뿐인 것으로 나타나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어머니는 자녀에게 거부적 태도를 나타내었다. 양육행동 범주 중 '통제'에 미치는 4개 변인의 영향력은 3%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은 어머니의 父에 대한 정서적 애착(β=-.17, p<.05)으로서 어머니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정서적 애착이 낮을수록 통제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주요변인들간의 상관관계 N = 253

	1	2	3	4	5	6	7	8	9
1. 독립심격려									
2. 거부적 태도	-.16*								
3. 합리적 지도	.61***	-.20**							
4. 통제	.06	-.24***	.08						
5. 적극적 참여	.45***	-.31***	.53***	.18**					
6. 아버지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	.22***	-.04	.21**	-.15*	.16*				
7. 어머니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	.22***	-.01	.26***	-.16*	.21***	.48***			
8. 결혼만족도	.30***	-.22***	.29***	.02	.32***	.28***	.19**		
9. 남편의 양육참여도	.24***	-.03	.28***	-.08	.25***	.13	.07	.27***	
10. 사회계층	-.07	.05	-.00	-.15*	.03	.03	-.01	.15*	.23***
N(명)	250	248	250	250	249	236	243	243	233
평균	1.94	2.57	1.88	2.50	2.18	2.43	2.29	2.28	2.09
표준편차	.44	.30	.37	.37	.38	.32	.29	.38	.40

* p<.05, ** p<.01, *** p<.001

주) 사회계층 변인은 이 숙(1988)의 사회계층 분류 기준에 따라 아버지의 직업과 부모의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상, 중상, 중하, 하류로 구분한 것임.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하류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진 대상자가 없어 상, 중상, 중하로 구분하였음.

〈표 6〉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전체 변인들의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단계	종속변인 / 독립변인	합리적 지도					독립심 격려					거부적 태도					적극적 참여					통제				
		B	β	R^2	ΔR^2	F	B	β	R^2	ΔR^2	F	B	β	R^2	ΔR^2	F	B	β	R^2	ΔR^2	F	B	β	R^2	ΔR^2	F
1 단계	사회계층	-.01	-.02	.00		.06	-.06	-.08	.01		1.40	.01	.03	.00		.19	.04	.07	.01		1.02	-.09	-.15*	.02		4.80
2 단계	아버지에 대한 정서적 애착	.05	.04	.18	.18	8.32***	.16	.11	.19	.18	8.93***	-.02	-.02	.03	.03	1.17	-.04	-.03	.17	.16	7.62***	-.20	-.17	.05	.03	2.14
	어머니에 대한 정서적 애착	.20	.14				.18	.11				.03	.02				.29	.20**				.01	.01			
	결혼 만족도	.20	.19**				.34	.28***				-.14	-.17*				.27	.25***				.07	.07			
	남편의 양육 참여도	.26	.26**				.17	.14*				.00	.00				.16	.15*				-.04	-.04			

* p<.05 ** p<.01 *** p<.001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36개월 전후의 영유아를 가진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신의 부모에 대해 갖는 정서적 애착과 자신의 결혼만족도 및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도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각 독립변인들이 양육행동 각 범주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고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아버지 및 어머니에 대해 정서적 애착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합리적인 지도를 하고 독립심을 격려하며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부적 행동이나 통제적 행동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부모에 대한 애착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부/모에 대해 애착을 가진 어머니들은 정서적 애착이 낮은 어머니들보다 더 긍정적인 방향의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애착의 내적 작업 모델을 가정하고 애착의 세대간 전이를 지지한 선행 연구결과(Bretherton et al., 1991; Sroufe et al., 1985; Belsky & Pensky, 1990; Belsky & Vondra, 1993)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출생가족에서 부모로부터 경험한 양육행동 및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한 정서적 애착은 새로운 가족을 형성한 후의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둘째,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자녀에게 합리적 지도와 독립심 격려를 많이 하며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반면, 결혼만족도가 낮을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거부적 태도를 많이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인 결혼생활은 긍정적인 양육과, 그리고 부정적인 결혼생활은 부정적인 양육과 관련이 있다고 본 Engfer(1990)

의 'spill-over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며, 다른 많은 선행연구들(Belsky & Isabella, 1985; 문인숙, 1985; 박성연, 1992; 전현진, 박성연, 1999)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예상했던 바와 같이, 남편이 자녀 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지도하고 독립심을 격려하며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남편과의 만족스러운 결혼관계나 남편의 적극적인 자녀 양육 참여는 어머니들에 대한 지지체계로서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촉진해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어머니의 부/모에 대한 정서적 애착, 결혼만족도,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도가 각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부/모에 대한 애착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적극적인 참여' 행동 및 '통제' 행동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별로 크지 않았다. 한편,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제외한, 모든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은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도였다. 이러한 결과는 20~30대 어머니들의 양육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변인이 부부체계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가 상호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결국, 어머니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결혼만족도 및 남편의 양육참여도 변인이 투입됨으로써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 부모에 대한 애착표상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영유아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상황이 자녀에 대한 표상 또는 생각에 영향을 주어 양육행동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Slade, Belsky, Aber와 Phelps(1999)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한편,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갖는 정서적 애착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적극적 참여'를 많이 하고, 어머니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갖는 정서적 애착이 낮을수록 어머니가 '통제' 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나타낸 본 연구 결과는 흥미롭다. 이는 아버지가 자신의 부모에 대해 친밀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할수록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진 선행연구(김희주, 1996)와, 또한 아동기 때 아버지로부터 거부되었던 경험을 가진 어머니는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전현진, 박성연; 1999)와 비슷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애착유형과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발견하지 못한 강차연, 장연집(1999)의 결과와는 다르다. Bowlby의 애착이론을 지지하지 못한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어머니의 응답의 편파성을 들고 있으나 애착을 연속적이 양적으로 측정한 본 연구와는 달리 애착을 질 적인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한 데 기인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해석 가능성은 애착유형과 긍정적 양육행동간의 관계가 미약하게 나타난 Slade 등(1999)의 결과로 뒷받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거부적인 양육행동과 관련된 변인은 유일하게 결혼만족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자녀에 대한 거부감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결혼생활의 질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아동학대나 아동양육환경으로서 가족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어머니의 바람직한 양육행동은

아동기의 경험, 즉 어렸을 적 부모와 긍정적인 애착관계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있어 이러한 애착표상의 영향보다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부관계로 나타났다. 즉, 네 가지 독립 변인들 중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대부분의 양육행동 범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어린 유아를 양육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젊은 세대의 어머니들에게는 서구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부부관계가 양육행동에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이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이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 결과 일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 연령층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애착표상과 결혼관계의 상대적 영향력을 연령에 따라 비교해 본다면 애착과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자기보고식 자료에 근거하였다는 제한점을 지니나, 2~3세의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애착표상과 부부관계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애착의 내적 표상은 변화될 수도 있다는 비연속성의 개념에 근거해 볼 때, 아동기에 대한 애착 표상과 양육행동간의 관계가 부부관계의 질이나 아동의 특성으로 인해 매개 또는 중재되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차연 · 장연집 (1999). 어머니 애착유형과 결혼갈등, 자녀양육행동 및 아동행동문제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0(3), 51-76.

김영신 (1981).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충남과학연구지 8권 2호 (충남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165-179.

김희주 (1996).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도 및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문인숙 (1985).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자녀의 인성 및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박성연 (1992).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능력발달과의 관계.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박성연 · 전춘애 · 한세영 (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203-216.

박응임 (1995). 영아-어머니간 애착유형과 그 관련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유은희 (1991).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과 결혼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 숙 (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정희 (1986). 어머니가 지각한 결혼만족도 및 자녀 교육관과 양육태도와의 관계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이해영 (1995). 저소득층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능력.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임희수 (1993). 첫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관련변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춘애 (1994). 부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 지각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전춘애 · 박성연 (1998).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변인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95-105.

전현진 · 박성연 (1999).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3), 153-170.

최경순 (1993).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하승민 (1984). 어머니의 성역할 태도와 자녀양육 가치관.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

Belsky, J. & Isabella, R. A. (1985). Marital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to the family of origin and marital change following the birth of a baby: A retrospective analysis. *Child Development, 56,* 342-349.

Belsky, J. & Pensky, E. (1990). Developmental history, personality and family relationships: Toward an emergent family system. In R. A. Hinde & J. Steven-Hinde (Eds.). *Relationships Within Families.* Oxford, England : Oxford, 193-217.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Belsky, J., Gilstrap, B., & Rovine, M. (1984). The Pennsylvania Infant and Family development Project I: Stability and change in mother-infant and father-infant interaction in a family setting at 1-to-3-to-9months. *Child development, 55,* 692-704.

Belsky, J., Youngblade, L., Rovine, M, & Volling, B. (1991). Patterns of marital change and parent-child inter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3,* 489-494.

Block, J. H., Block, J., & Roberts, G. C. (1984). Continuity and change in parents' child-rearing practices. *Child Development, 55,* 586-597.

Bretherton, I., Bringen, Z., & Ridgeway, D. (1991). Parental side of attachment. In Pillimer, K. & McCartney, K. (Eds.), *Parental-Child Relations Throughout Life,* Hillsdale: Lawrence Erlbaum, 1-24.

Clarke-Stewart, K. A. (1980). The father's contribution to children's cognitive and social development in early childhood. In F. A. Pedersen (Eds.), *The Father-Infant Relationship: Observational Studies in the Family Setting,* New York: Praeger.

Cohn, D. A., Silver, D. H., Cowan, C. P., Cowan, P. A., & Person, J. (1992). Working models of childhood attachment and couple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Issue, 13(4),* 432-449.

Crase, S., Clark, S. & Pease, D. (1979). 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 Manual, Iowa State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Donovan, W. L. & Leavitt, L. A. (1989). Maternal self-efficacy and infant attachment: integrating physiology, perceptions, and behavior. *Child Development, 60,* 460-472.

Easterbrook, M. A. & Emde, R. N. (1990). Marital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R. A. Hinde & Steven-Hinde (Eds). *Realtionships within families.* Oxford, England: Oxford, 83-103.

Emery, R. E. & Tuer, M. (1993). Parenting and marital relationship. In T. Luster & L. Okagaki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Hillsdale: Lawrence Erlbaum, 227-250.

Engfer, A. (1990). The interrelatedness of marriage and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In R. A. Hinde & J. S. Hinde (Eds.), *Relationships within Families,* Oxford, England: Oxford, 104-118.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Luster, T. & Okagaki, L. (1993). Multiple influence on parenting: Ecological and life-course perspectives. In T. Luster & L. Okagaki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NJ: Hillsdale, LEA, 227-250.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66-106.

Margolin, G. & Patterson, G. R. (1975). Differential consequences provided by mothers and fathers from their sons and daughter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11(4), 537-538.

Park, S. Y. & Belsky, J. (1998). South korean mothers' westernization and orientation toward child inhibition. Paper presented at the Symposium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Behavioral Development in Bern, Swiss.

Pleck, J. H. (1997), Paternal involvement: Levels, sources, and consequences. In M. E. Lamb (Ed.), *The role of father in child development* (3rd ed., pp. 66-103). NY: Wiley.

Slade, A., Belsky, J., Aber, J. L., & Phelps, J. L. (1999). Mothers' representations of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toddlers: Links to adult attachment and observed mothe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5(3),* 611-619.

Sroufe, L. A., Jacobvitz, D., Mangelsdorf, S., DeAngelo, E., & Ward, M. J. (1985). Generational boundary dissolution between mother and their preschool children: A relationship systems approach. *Child Development, 56,* 317-325.

Vondra, J. & Belsky, J. (1993). Developmental origins of parenting: Personality and relationship factors. In Luster, T. & Okagaki, L.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Hillsdale: Lawrence Erlbaum, 1-34.